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15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49)  
한라산 위용 보여주는 조망터

입력 : 2004. 10.01. 00:00:00



▲맛있는 초원의 연속인 민오름(민대가리)으로 향하고 있는 탐사팀. 민오름에 서면 동쪽으로 장구목 큰드레왓 삼각봉 죽은드레왓이 산맥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 사진=강경민기자 qmkanq@hallailbo.co.kr

## 민오름(민대가리오름)

오랫만에 탐사를 나섰다. 9월 들어 잦은 비로 탐사가 여러차례 미뤄졌다. 이번 탐사 코스는 어리목계곡을 따라 한라산 서사면에 위치한 민오름(일명 민대가리오름)을 오르는 것이다. 계곡으로 다가서니 물소리가 요란하다. 한라산 계곡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정경은 아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물이 흐르는 계곡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느라 법석이다.

어리목계곡에 들어서니 감회가 새롭다. 본지의 한라산학술대탐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계곡이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 13~14일 탐사팀은 첫날 무수천과 도두천 발원지인 Y계곡 탐사에 나섰다. 지도상에 나타난 Y계곡은 밑에서 볼 때 오른쪽 계곡은 한라산 서북벽에서, 왼쪽 계곡은 장구목 일대에서 각각 발원한다.

그래서 첫날 탐사팀은 오른쪽 계곡을 거쳐 남벽으로 백록담을 올라 산신제를 지낸 뒤 다음날은 장구목을 거쳐 왼쪽 계곡으로 하산했던 것이다. 당시는 겨울철이어서 많은 눈이 내렸다. 빙판이 된 계곡과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새롭다.

하지만 첫 탐사에서 우리는 제주골고사리(변산일엽) 자생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주골고사리는 선홍동백동산 일대에서 몇개체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으나 그 후로는 확인이 안돼 당시만 해도 제주에서 멸종된 것으로 추측할 무렵이었다.

그래서 제주골고사리의 새로운 군락지가 발견되고, 그것도 해발 1,300m의 높은 지대에서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탐사의 큰 수확이었다.

어디 골고사리 뿐이라. 빨간 열매가 달리며 사철 푸른 잎사귀가 겨울에 더욱 푸르러지는 식나무도 어리목계곡 중하류에서 발견됐는데, 이 식물도 골고사리 못지 않은 관심을 끌었던 식물이다. 탐사를 통해 술한 식물들이 발견됐고 그 때마다 탐사단은 탄성과 함께 피로를 잊은 채 탐사에 나섰던 것이다.

계곡을 따라 10여분 올라가니 집수장이 나타난다. 이 집수장은 어리목의 양쪽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 도수로로 통해 어승생수원지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60년대 후반 군사정부가 전국의 불량배들을 검거한 뒤 강제로 어승생저수지공사에 투입할 때 만든 구조물이다. 그들 중에는 불량배들도 없지 않겠지만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불량배라는 딱지를 붙여 강제노역현장에 투입해도 누구 하나 항의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 엄혹한 시절의 이야기가 한참 이어지더니 마침내 80년대초의 삼청교육대까지 꼬리를 잇는다.

흐르는 땀을 계곡물에 씻고 다시 오르기를 여러번 어느새 계곡 상부에 도달하니 70~80도의 급경사면이 앞을 가로막는다. 조릿대와 나무가지들 잡고 길아닌 길을 숨을 헐떡이며 한참을 오르니 장구목에 도달했다. 주위를 살펴보니 바로 코앞에 민오름 정상부가 펼쳐져 있다.

웃상굴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웃상굴란 위쪽(웃) 구상나무(상) 숲속에 있는 바위굴(굴)이란 뜻으로 옛날에는 목동과 사냥꾼이 비를 피하거나 약초꾼들의 숙소로 이용됐던 곳이다.

민오름(1,601m)은 한라산의 내로라 하는 높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상부에 나무와 큰 바위가 없는 밋밋한 초원인데다 정상부가 도드라지지 않고 평탄하다. 그래서 민오름(민대가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계곡을 향해 돌출해 있는 정상부의 암벽에 올라 산아래를 굽어보니 절경이 한 눈에 들어 온다. 오른쪽으로는 바로 앞서 탐사했던 장구목과 큰드레왓, 삼각봉, 죽은드레왓이 발아래 놓여 있다. 민오름에서 이들 오름을 보니 하나의 산맥처럼 보인다.

죽은드레왓의 선녀바위는 또 어떤가. 어찌 해서 거대한 암벽을 선녀바위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암벽속의 특정한 바위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녀바위의 위용은 성널오름의 암벽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이런 비경이 어디 이곳에만 감춰져 있을 것인가. 한라산은 보는 각도와 어디에서 조망하느냐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한라산의 위용과 비경을 보려면 계곡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민오름은 이처럼 숨겨진 한라산의 또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오름 전망대인 것이다.

/특별취재팀

## [전문가 리포트]Y계곡...야생조류 최적의 안식처

Y계곡을 형성하고 있는 작은드레왓, 큰드레왓, 민대가리오름 그리고 어리목 등산로는 한라산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낙엽활엽수림지대이다. 조류생태학적으로 낙엽활엽수림대는 침엽수림대에 비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류나 각종 열매들이 풍부하여 조류의 종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물이 연중 흐르고 있고 은신처가 많아 야생조류를 포함하여 노루와 오소리, 쇠살모사 등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류로는 큰오색딱다구리, 직박구리, 곤줄박이, 박새, 동박새, 어치, 굴뚝새, 휘파람새, 노랑턱멧새 등 한라산숲을 지키는 제주 텃새들이 많았으며 여름철새들도 상당수가 이 일대에서 번식한다.

이번 탐사에서는 여름철새들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쇠솔딱새가 Y계곡 발원지 부근과 민대가리오름 서쪽 지류에서 고목에 앉아 먹이감을 노리고 있었다. 이 새는 혼자서 숲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꼭대기나 고목 가지에 앉아 있다가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고는 다시 제자리에 앉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몸크기가 13cm로 참새보다 조금 작은 새로 몸색깔이 회색빛이고 까만 눈동자가 선명하기 때문에, 요즘 등산객들에게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쇠솔딱새는 나그네새라는 철새로, 제주도 이북에서 번식한 후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에 제주도를 거쳐가는데, 해안가의 곰솔에서부터 한라산 구상나무 군락까지 관찰된다.

Y계곡의 발원지 근처까지 올랐을 때, 선녀바위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큰드레왓의 품세가 한 눈에 들어왔다. 어쩌면 이곳에서 그 녀석(검독수리)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았다. 그 때 큰드레왓 상공에서 매 1마리와 칼새 10여 마리가 비행하고 있어서, 이런 나의 설렘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들은 급경사를 이루는 산악 절벽에서 지내는 새로 제주에서는 백록담 남서벽, 삼각봉, 영실, 산별른내, 성널오름과 어후오름 등이 그들의 주 서식지이다. 검독수리는 한라산 암벽이나 숲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맹금류로, 최근 관찰기록이 잇따르고 있다. 비록 이날 검독수리 대신에 매와 민대가리오름에서 황조롱이 1마리를 관찰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검독수리는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김완병 탐사위원(제주도자연사박물관/동물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